

<도입 질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 앞에 설 때가 많이 있다.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본문 해석>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 그런 상황 그런 시대 속에 있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앗수르를 꺾고 등장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었다.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잘 보여주기 위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다.

1. 하박국은 이런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1-4절)

“하나님 어찌하여 강포, 죄악, 패역, 변론과 분쟁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문제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의문과 고민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2.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5-11절)

하나님은 놀라고 믿지 못할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신다. 잔인하고 악한 갈대아 사람(바벨론 사람)을 일으켜 유다를 점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바벨론의 강포와 범죄로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사야 55장 8~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3. 하박국은 하나님과 남유다의 고난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한다.(12-17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잠잠하시냐고 기도한다.

☞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문제를 놓치지 말고 기도로 씨름해야 한다. 하나님을 놓치면 불신앙의 길로 들어서고, 분노만 가득하게 된다. 반면에 문제를 놓아 버리면 우리를 가식적인 신앙인으로, 거짓 평화 속에 존재하게 된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사 55:9)

통독

이번 주 통독 말씀

9/14(월)	9/15(화)	9/16(수)	9/17(목)	9/18(금)	9/19(토)
미 6-나 2장	나 3-합 3장	습 1-학 1장	학 2-속 3장	속 4-7장	속 8-11장

QT

이번 주 QT 말씀

9/14(월)	9/15(화)	9/16(수)	9/17(목)	9/18(금)	9/19(토)	9/20(주일)
렘 31:31-40	렘 32:1-15	렘 32:16-35	렘 32:36-44	렘 33:1-13	렘 33:14-26	렘 34:1-7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닫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2. 나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 앞에 섰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보세요.
3. 문제 앞에서 나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나의 기도 속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4.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끌어안고 기도로 씨름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